

임금만 빼고 다~ 똑같다?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 위반하고 또다시 직원 차별

정규직 전환 합의 이후 2018년 1월 1일 부터 정규직 전환이 시작됐다. 하지만 임상시험센터 코디네이터 직원들은 병원의 납득할 수 없는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상시업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병원은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제는 임금과 인사제도를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하겠다고 하고 있어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임상시험센터 직원들은 유령?

현재 병원의 보수규정은 임원과 전공의를 제외하고 일반직·운영기능직 두 가지의 직급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임상시험센터 코디네이터 직원들만 병원 보수규정 어디에도 없는 별도의 직급체계로 운영되어 제대로 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코디네이터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합의이후 안정된 고용 뿐 만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기대했지만 병원은 유령취급 하며 또다시 차별을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 위반에 코디네이터들, 노동조합 단체가입

또한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1년을 넘게 같이 일한 임상시험센터 연수생 3명을 2월말에 해고 하겠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병원은 또 다른 차별을 시도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가이드라인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코디네이터 직원 47명중 41명이 단체가입을 했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다. 코디네이터 직원들은 유령이 아니다. 병원이 책임지고 차별을 시정하라.

쟁의기간 임금손실 공동책임 집행 안내

1. 2월 급여에서 병원 공제분

- 개인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은 파업 참가 일수만큼 '무노동무임금'을 공제합니다.
- 파업에 미 참가한 조합원은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 공동책임분 36,180원이 공제됩니다.

2. 노동조합 임금분

- 36,180원을 제외한 파업 손실금 전액을 '노동조합' 이름으로 조합원 개별 급여계좌로 입금합니다.

※ 2017년 파업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빼앗긴 복지를 일부 되찾았습니다.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임금손실 공동분담 투쟁에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신한은행/110-485-656409 /예금주 최상덕)

문의사항은 노동조합 T.3440 ~ 1 으로 연락 바랍니다.

2018년 1분기 하루교육 보고



♥ 3,000 like

서울대병원분회 신나는 #하루교육을 다녀와서!

지난 2월 1일과 2일에는 1분기 하루교육이 진행됐다. 오전 교육에 이어 영화 '1987'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된 이날 하루교육은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특히 지난해 가입한 신규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날 오전에는 영화 '1987' 관람 전 영화의 배경이 된 87년 당시 민주화 항쟁과 노동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단체협약'은 우리가 몰랐던 임금과 휴직제도 관련한 교육이었고 많은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오후에 진행된 조별 토론에서는 2017년 우리의 투쟁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2018년 새로운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근골격계예방관리 추진팀 실무 교섭보고

1. 직원식당 개선 - 냉동식품 위주의 식단 근절, 세척실 환경 개선, 첨단외래센터 직원식당 지하 1층으로 변경 확정 (250평 노사합의사항 이행예정), 건강관리실 및 수유실 첨단외래센터로 이전
2. 원무과 근무복 개선 - 근무복 개선요구, 하복 지급 시 문제점 반영하여 지급 계획
3. 간호사 강의실 확대 - 병원 "전체공간을 하나 마련하여 크게 설치할 계획"
4. 2018년 근무화 지급 - 각 부서에 지급 완료됨, 미지급된 부서는 조사하여 지급 예정
무알콜 손소독제 지급 - 건강관리실에 비치 완료, 필요한 조합원은 건강관리실에 신청하여 수령하기로 함

